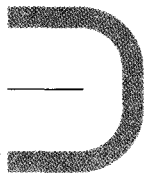


# 프로폴리스 효능의 체험사례



이 학 박 사 박 원 기 (가보농산 고문),  
한국식품사전 저자, 서울 신광출판사, 2000년7월발행

## 4. 갱년기장애(更年期障碍)

호르몬(Hormone)균형이 조정되어서 고통스럽던 증상이 거짓말같이 완치되었다. (체험자: 일본인 松原要:まっはうかなめいるすう)

위의 체험자는 1996년 8월의 어느 날 위 경련(胃痙攣) 발작(發作)이 있었다. 이 때는 여름철이어서 체력도 약해졌고 심신피로의 원인도 있었으나 진단 결과 갱년기장애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 밖에도 눈의 건조, 편두통(偏頭痛), 어깨가 빠근하고, 머리가 피로 올라가는 등 갱년기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특히 눈의 건조가 심하여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늘 인약을 넣어야 할 정도였다. 이는 갱년기장애의 증상으로 자기면역질환(自己免疫疾患)의 일종인 눈물이나 타액 등 진액(津液:한국식품사전 P.9116)이 말라 나오지 않는 증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증상은 어느 경우나 갱년기장애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이런 증상에도 「프로폴리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용자료 P.169) 위의 체험자 송원(松原)씨의 경우는 먼저 쇠약해진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에 몸을 조절하며, 자연치유력(自然治癒力)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방약과 「프로폴리스」에 의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주(週) 1회 클리닉(진료소)을 다니면서 치료를 계속하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런 후 가장 먼저 위 경련이 없어지면서 몸의 상태가 대체로 편안한 기분이었다. 2주쯤 지나서 눈에 습기가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편두통도 가라앉았다. 그리하여 치료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무렵에는 어깨가 빠근함이나 두통(頭痛) 등이 없어졌다. 체험한 환자인 송원(松原)씨는 놀랄만한 「프로폴리스」의 효능을 실감했다. 증상이 완전히 가서 치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프로폴리스」를 먹었다. 현재 류머티즘(rheumatism), 간염 등의 난치병이라 불리는 질환은 대부분 자기면역질환이다. 그리하여 그 원인은 자기면역의 보체(補體)에 있다. 이 보체를 생산하는 간장이 약해지면 보체의 생산량이 부족절하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치료에 스테로이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것으로는 보체도 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많고, 빗나간 치료임을 알 수 있다. 한방(漢方)과 「프로폴리스」는 약화된 장간면역(腸肝免疫)을 강화하여 보체를 조정하는데 이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는 기전이다.

바로 앞서 松原씨의 극적인 치료체험이 그 증명이라 할 수 있다.

## 5. 고혈압(高血壓)

20년 전부터의 고혈압 체질이 1개월로 훌륭하게 개선되었다.

(체험자: 일본인 山田敏明:やまたむといぬかるい, 68세 남자)

최고혈압이 260mmHg, 최저혈압이 110mmHg의 중증(重症)인 고혈압이

었다. 사람의 혈압은 그 체질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 값을 나타낸다. 성인이 될수록 일반적으로 높아진다. 어느 값 이상을 고혈압증이라 불리는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최고혈압이 160mmHg 이상, 최저혈압이 95mmHg 이상의 경우를 흔히 말한다.

고혈압증은 체질이 병증인데 앞서 체험자의 경우는 20년간 계속되는 고혈압 체질이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금연하거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이나 고염분을 피하는 식생활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위의 체험자 환자인 야마다(山田)씨는 「프로폴리스」 35mL를 1개월간에 나누어 마셨다. 1개월이 지나서 혈압은 최고혈압이 124mmHg, 최저혈압이 86mmHg인 정상값이 되었다. 그 후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혈압은 상승하지 않았다. 「프로폴리스」에 의한 혈압의 정상화는 일시적이 아님을 확인한 셈이며 위 환자였던 야마다(山田)씨의 고혈압 체질은 완전히 개선되었다.

## 6. 고혈압-안면신경증(顔面神經症)

「프로폴리스」로 안면 신경증이 치료되었다.

(체험자: 일본인 64세, 여자)

◎고혈압과 신경마비는 목등뼈의 이상이 원인이었다.

위의 체험자는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민하면서 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2년전에 얼굴의 오른쪽 안면신경마비(顔面神經痙攣) 증상이 나타났다. 물론 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마비로 인해서 오른쪽 입 끝이 좀 비틀어져 가끔 실룩실룩한 오른쪽 안면이 경련(痙攣)하는 증상이 있었다. 혈압을 측정해보니 최고혈압이 200mmHg, 최저혈압이 160mmHg인 고혈압이었다. 매일 아침 4시경에 잠이 깨며 이때는 언제나 머리가 아프며, 더구나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느낌이 따른 것이었다. 안면신경마비도 하루에도 자주 일어났다. 체험자의 목등뼈를 진찰해본 결과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안면신경마비가 있게됨을 알게 되었다.

◎목등뼈의 치료가 자율신경(自律神經)을 조정한다.

곧바로 우선 환자 스스로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신경을 조정하는 치료방법으로 목등뼈 치료를 시작하였다. 해부학, 생리학상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목등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부터 자율신경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곳이 자율신경의 출발점이다. 이것부터 장간(腸肝)의 내장을 포함한 내장 전체에 자율신경이 뻗쳐있게 된다. 특히 목등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 굶어져 있으면 자율신경의 역할이 잘 전달되지 않게되어 장간면역의 역할을 비롯하여 내장 전체의 기능이 나빠진다. 그리고 두통, 어깨 빠근증, 안면신경증 등이 있게 된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가 목등뼈의 조정을 필수적으로 노력하여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인용자료의 저자인 의학박사 관아광남 선생의 클리닉에서는 한방약과 「프로폴리스」를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 2, 3주간에 혈압이 차츰 내려가기 시작하여 한달 동안에 최고혈압이 160mmHg 최저혈압이 110mmHg였다. 2개월이 지나 3개월 차에는 최고혈압이 120mmHg, 최저혈압이 80mmHg로 되어 정상적인 혈압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두통과 안면마비도 조금씩 개선되었다. 지금은 두통, 안면마비가 모두 없어져 체험 환자는 정상화로 완치되었으며 계속 한방과 「프로폴리스」를 계속 응용 하였다.

7. 만성관절류머티즘(慢性關節 류머티즘)

류머티즘 통증을 「프로폴리스」로 치료하였다.

(체험자: 일본인 小川加壽子: こがわじゆし, 42세, 여자)

위의 체험자 소천씨는 오랫동안 관절 류머티즘 환자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관절이 아프다는 손과 다리를 살펴보면 양손과 손가락과 양다리의 발가락이 심하게 변형되어 보기만으로도 관절류머티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절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고, 특히 비오는 흐린 날씨인 저기압에는 조금씩 환부가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걸지도 못할 정도이다. 이와 같은 증상은 30대 전반기에 류머티즘에 걸렸기 때문이다. 류머티즘은 수족의 관절에 있는 증상으로 여성에 많고 특히 위의 체험자인 소천씨처럼 30대부터 40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곳의 관절만이 아픈 것이 아니며 동시에 여러곳의 관절에서 아침 일어날 무렵에는 손가락이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증상이 진행하면 수족의 관절이 심하게 변형되어 통증이 따르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게 된다. 원인은 확실히 밝혀있지 않다.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법으로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증요법(對症療法)을 벗어나지 않는 현황이다.

◎ 「프로폴리스」의 면역조정작용 · 소염작용 · 진통작용에 효과가 있었다.


류머티즘도 자기면역질환의 일종이므로 면역력을 조정하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소염작용과 진통작용이 있으므로 관절로 인한 통증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인용자료의 저자인 의학박사 관아광남 선생의 클리닉에서는 한방약과 「프로폴리스」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시작으로부터 3, 4주 지날 무렵 소천씨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통증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으며 움직이기 쉽게 되었다. 그 후 2개월이 지나서는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고, 손가락 ·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었으며 저녁에 수면도 잘 이루게 되었다.

8. 뇌졸중 후유증(腦卒中後遺症)

혈액의 흐름을 좋게하는 작용이 뇌의 역할을 회복시킨다.

(체험자 일본인 田知子 かいなしろ, 64세, 여자)

뇌졸중으로 넘어진 위의 체험환자인 씨는 여러 곳의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부득이 퇴원한 후 오른손이 움직이지 못한 후유증이 있게 되었다. 오른편 어깨와 팔의 뒷쪽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근육을 쓸 수 없어 위위어 기늘어지고 이음이 있을 정도였다. 팔의 앞쪽은 부종이 생기고, 특히 손가락 부분의 부종은 심한 상태였다. 오른손은 마비 때문에 피었다 쥐었다 할 수도 없었다. 뇌졸중의 후유증 덕분에 언어장애도 있으므로 본인이 증상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정도였다. 「오른편 어깨와 손이 심하게 무거운 느낌이 있고, 뉘셀 통증이 심하였다.」고 호소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의 세포는 약화되어 탄력성이 없어지며 굳어져서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뇌출혈은 노화 등에 의해서 뇌의 혈관이 파열하여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흘러나온 혈액이 뇌를 압박하거나 부패시켜 회사되거나, 뇌의 신경세포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다른 뇌경색은 뇌의 혈관을 혈전(血栓)이 막아 혈액의 흐름을 막게 되므로 뇌에 혈액이 통하지 못하여 신경세포가 회사하는 등 장애가 있게 된다. cpgawk인 씨는 경우는 후자인 뇌경색에 속하는 뇌혈전(腦血栓)이었다. 손발의 마비, 언어장애 등은 전형적인 뇌혈전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양봉농가의 희소식

2000년 신제품 조기산란 촉진 사양기 출현

급수와 사양을 동시에 !! (급수와 사양에서 해방)

최산농 축시설, 소분시설 완비

- ♣ 봄벌 사육시 소광대 위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없이 급수와 자극 사양을 동시에 하므로서 봉군 증식이 빠르다.
- ♣ 급수와 사양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호수 연결이 용이하고 이동과 설치가 간단하며 다량 증식 사육하므로 봄 아카시아 꿀 풍년
- ♣ 사양기에 빠져죽는 것을 방지하고 좌우, 앞뒤는 물론 밑에 서도 물어갈 수 있어 먹이 운반 거리가 단축되어 벌의 활동 영역이 넓어서 속히 물어가 도봉이 없고 수명이 연장된다.



양 승 만

충남 서천군 판교면 한암리 3구

자택 : 041-951-5823

휴대폰 : 011-676-6315

농협온라인 : 465041-52-002130

우체국온라인 : 310581-05-005645